

우즈베키스탄 경제 브리프

1. 대내외 정세 1

- o 우즈베키스탄 코로나19 동향
- o 미르지야예프 대통령, 헝가리 공식 방문
- o 미르지야예프 대통령, CIS 정상회의 참석차 카자흐스탄 실무 방문
- o 노로프 외교장관, OTS 외교장관회의(이스탄불市) 참석
- o 노로프 외교장관, '테러리즘 대응 및 테러리스트의 이동 방지를 위한 국경 보안 및 통제 관련 국제·지역 협력' 컨퍼런스(두산베市) 참석
- o 미르지야예프 대통령, 투르크메니스탄 공식 방문
- o 미르지야예프 대통령, 겨울시즌 대비 방안 논의
- o 노로프 외교장관, 제15차 한-중앙아 협력포럼 참석차 방한
- o 미르지야예프 대통령, 제1차 '중앙아+EU' 정상회의(아스타나市) 참석

2. 경제·산업 동향 6

- o 미르지야예프 대통령, 전기차 분야 활성화 방안 논의
- o 우즈베키스탄-미국, 경제협력 확대 방안 모색
- o 미르지야예프 대통령, 농업개혁 중요성 강조
- o 22.3분기 우즈베키스탄 경제 현황 평가
- o 투자대외무역부 대표단 방한
- o 제23차 우즈벡-러시아 경제협력 정부 간 위원회 회의(타슈켄트市) 개최
- o 제16차 우즈벡-일본 경제협력위원회 회의(타슈켄트市) 개최
- o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다각적 협력 발전 방안 모색
- o 우즈베키스탄-튀르키예, 주요 분야 협력 현황 및 전망 논의

3. 에너지·인프라 동향 10

- o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우즈베키스탄 송전선로 건설 계약 체결
- o 튀르키예 Chengiz Energy, 시르다리아州 220MW 화력발전소 가동 착수
- o 아시아개발은행(ADB), 우즈베키스탄 통합 도시 개발 지원
- o 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 에너지부, 양해각서 체결
- o 우즈벡철도공사, 2025년까지 44개 신규 열차 도입 예정
- o 타슈켄트-사마르칸트, 타슈켄트-안디잔 유료고속도로 2026년까지 건설 예정
- o 우즈베키스탄, 對중국 천연가스 수출량 증가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Republic of Uzbekistan

주 소 Afrosiab st. 7, Tashkent, 100029, Uzbekistan
전 화 +998-71-252-3151~3
이 메 일 uzkoremb@mofa.go.kr
홈페이지 <https://overseas.mofa.go.kr/uz-kor/index.do>

※ 본고의 내용은 우즈베키스탄 내 관련기관, 언론 등 발표자료에 근거하였으며, 실제 내용과 다를 수 있음을 양지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내외 정세

□ 우즈베키스탄 코로나19 동향

- 10.18.(금) 12:00 기준 우즈베키스탄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누적 244,964명(완치 241,504명, 사망 1,637명)
- 10.19. 위생·공중보건청은 최근 독감 유행에 주의하여 △독감백신 접종, △의료용 마스크 착용, △유증상자와 접촉 자제 등 개인위생 관리에 신경쓸 것을 권장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헝가리 공식 방문

- (카탈린 노박 헝가리 대통령 예방, 10.4.) 양측은 양국 관계 발전 현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문화·인도적 교류 확대, △경제, 교육 협력 지속 확대, △다자기구를 통한 대화 및 상호 지지 지속 등 양국 다각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 논의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헝가리 대통령에게 우즈베키스탄 방문 초청 의사 전달
- (헝가리 기업·금융인 면담, 10.4.)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교역량, 합작기업 수, 투자액 증가 등 우즈베키-헝가리 경제 협력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외환 시장 자유화, △국가자산 민영화, △세제행정 개혁 등 최근 우즈베키 경제 정책의 성과 강조 / 또한, 향후 양국 관계 발전 방향으로 과학, 혁신, 기술, 인프라, 제약, 농업, 식량, 화학, 섬유, 가죽 등을 언급
 - ※ 10.3.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헝가리 방문 계기 부다페스트市에서 개최된 우즈베키-헝가리 비즈니스 포럼 결과로 총 10억불 규모 투자, 고역, 금융 협약서 체결
- (빅토르 오르반 총리 면담, 10.4.) 양측은 양국 관계의 역동적 발전 및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지속적 강화를 높이 평가하고 △제약, 농업, 전기공학, 기계공학, 혁신, 디지털화, 운송, 과학 분야 협력 강화, △UN, OSCE, OTS 등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 방안, △국제 및 지역 현안 등 논의 / 또한, 향후 양국의 우호관계 및 전략적 동반자관계 강화에 대한 의지 재확인
 - ※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22.11.11일 제1차 OTS(튀르크어권국가기구) 정상회의(사마르칸트市) 참석 의사 표명
- (양자문서 서명식, 10.4.)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관계 발전에 대한 공동 성명, △산업협력, 과학·기술, 농업, 스포츠 등 협력 발전을 위한 총 14개 문서 서명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CIS 정상회의 참석차 카자흐스탄 실무 방문

- (제6차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 10.13.)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최근 대화와 신뢰가 결여된 국제관계 상황에서 안보 보장 및 국가 발전을 위해 △아프간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지속, △극단주의 예방을 위한 세대 간 교류 확대, △생산·물류망 및 교통 회랑 강화 등 글로벌 위기의 부정적 영향 대응, △디지털화,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등 산업혁명의 새로운 단계 진입, △식량안보 강화, △환경문제 및 기후 변화 대응 등 강조
 - ※ 동 회의에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이란,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카타르, 러시아, 타지키스탄, 터키, 벨라루스, 중국, 베트남 정상급 인사들 참석
-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양자회담, 10.13.) 양측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공동 투자프로젝트 추진, △튀르키예 기업의 우즈베크 민영화 참여, △문화 및 교육 분야 교류 활성화, △‘우즈베키스탄-튀르키예-아제르바이잔’ 형식의 장관급 회의 지속 등 중요성 강조
- (바그다드 압데예프 OTS 사무총장 접견, 10.13.) 양측은 최근 튀르크어권국가기구 (OTS)를 통한 대화 강화 및 다각적 협력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22.11월 사마르칸트市에서 개최 예정인 OTS 정상회의 준비 등 차기 행사 현안 논의
- (세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 접견, 10.13.) 양측은 양국 무역, 경제, 투자, 혁신, 교통, 통신, 문화 등 상호호혜적 협력 확대 잠재력을 강조하고 아프가니스탄 내 평화 구축 및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테르메즈~마자리-샤리프~카불~페샤와르’ 철도 건설 사업 전망 논의
- (보 티 안 쑤언 베트남 부주석 접견, 10.13.) 양측은 양국 협력 활성화를 위한 비, 면화, 육류, 유제품, 화학, 섬유, 자동차 부품, 전자 제품 등 유명한 협력 분야를 언급하고 비즈니스 교류 강화 및 투자 확대를 위한 △양국 전문가 상호방문, △정부 간 위원회 활동 재개, △우즈베크-베트남 비즈니스 협의회 발족 등 합의
- (CIS 정상회의, 10.14.)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CIS 국가의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 보장을 위해 △무역 장벽 제거, △역내 식량공급 환경 개선, △신규 물류 회랑 구축, △혁신 협력 및 청년 교류 확대, △교육, 과학, 보건, 스포츠, 문화, 예술 분야 공동 프로젝트 시행 등 필요성 언급
- (‘중앙아시아-러시아’ 정상회의, 10.14.)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역내 협력 강화를 위해 무역, 경제, 운송, 통신, 에너지, 문화, 환경 분야 파트너십 발전 이니셔티브 제시
- (라호몬 타지키스탄 대통령과 양자회담, 10.14.) 양측은 양국 △교역량 증대, △산업,

에너지, 교통, 인프라, 농업 분야 투자 프로젝트 시행, △SCO, CIS 등 지역기구를 통한 협력 강화 등 논의

□ 노로프 외교장관, OTS 외교장관회의(이스탄불市) 참석

- 10.17. 참석자들은 22.11월 사마르칸트市 개최 예정인 OTS 정상회의에서 체결될 문서 초안을 검토하고 국제·지역 현안 등 논의
 - ※ 동 회의에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튀르키예, 헝가리, 투르크메니스탄 외교장관 참석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무역 및 경제 네트워크 강화, △교통, 산업, 기술, 혁신 IT, 과학, 문화 협력 강화 등 중요성을 언급하고 현대의 도전과 위협 극복을 위한 체계적 대화 구축 필요성 강조

□ 노로프 외교장관, '테러리즘 대응 및 테러리스트의 이동 방지를 위한 국경 보안 및 통제 관련 국제·지역 협력' 컨퍼런스(두산베市) 참석

- 10.18. 노로프 외교장관은 △테러리즘 대응, △경험 및 정보 교환 확대, △양자 및 다자 협력 체계 구축 등 중앙아시아 내 협력 성과를 언급하고 도전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의 기반으로 선린우호, 상호 존중 및 신뢰를 밑바탕으로 한 중앙아 국가 간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 강조
- 또한, SCO 사마르칸트 정상회의(22.9월) 계기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제시한 對아프가니스탄 인도적 지원을 위한 특별기금(테르메즈市) 설립 등 아프간 경제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지속 중요성을 강조하고 테러리즘 및 극단주의 확산 방지를 위한 △효율적 청년 정책 수립, △세대 간 교류 활성화, △청년 포럼 개최 등 제안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투르크메니스탄 공식 방문(10.21.)

- (단독 회담) 양측은 △정치, 무역, 에너지, 운송, 물류, 농업 등 협력 확대, △중앙아 협력 심화 방안, △지역 및 국제 현안 등 논의
- (확대 회담) 양측은 양국 간 교역량 증대, 활발한 고위급 교류 등 협력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자유무역지대 조성, △교통 회랑 개발, △문화·인도적 협력 강화, △2023년도 영화제, 청소년 축제 등 문화 행사 공동 개최 등 중요성 강조
- (문서 체결식)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에 대한 선언문, △2022-2024 정치적 대화, 의회 간 교류, 교역 협력, 문화·인도적 교류 활성화 계획, △과학기술협력 협정, △의약·의료품 등록에 관한 협정 등 체결

- (회담 결과 브리핑) 양국은 △무역·경제 관계 추가 확대, △일자리 창출, 비즈니스 협력 활성화 등을 위한 자유무역지대 조성, △산업, 에너지, 농업, 운수, 물류 분야 협력 발전, △UN, OSCE, CIS, SCO 등 다자기구 틀 내 협력 지속 등 합의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겨울시즌 대비 방안 논의(대통령실, 10.24.)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겨울시즌 대비를 위해 △전력 공급 보장, △가스 공급망 디지털화, △에너지 자원 현황 실시간 모니터링, △국가 기관 내 에너지 효율성 향상, △에너지 절약 캠페인 활성화 등 지시

□ 노로프 외교장관, 제15차 한-중앙아 협력포럼 참석차 방한

- (반기문 GGGI 의장 접견, 10.24.) 양측은 △기후변화 억제, △녹색 기술 및 녹색 경제 성장, △탈탄소 전환 등 협력 강화를 위한 우즈벡-GGGI(글로벌녹색성장기구) 협력 전망 논의

※ 22.2월 우즈베키스탄 GGGI 대표사무소 개설

- (김진표 국회의장 접견, 10.24.)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주의 강화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新우즈베키스탄 발전 전략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고 개헌 추진에 대한 환영 의사 표명

- (한덕수 국무총리 접견, 10.24.) 한덕수 국무총리는 △21.12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방한 계기 양국 정상 합의사항 이행, △한-우 FTA 협상 가속화, △보건 분야 협력 강화 등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즈베키스탄의 민주적, 사회·경제적 개혁을 긍정적으로 평가

- (제15차 한-중앙아 협력포럼, 10.25.) 노로프 외교장관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게 의료, 디지털화, 생태, 관광, 경제 안보 분야 내 다자간 협력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제안한 공동 안보 및 번영을 위한 사마르칸트 이니셔티브의 중요성 강조

- (박진 외교장관 접견, 10.25.) 양측은 19.4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후 무역, 투자, 문화, 디지털화, 녹색 성장, 의료, 교육 등 주요 분야 협력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협력 강화, △평화 보장, △지역 안보 유지 방안 등 논의

- 노로프 외교장관은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 지지 / 박진 외교장관은 아프가니스탄 관련 우즈벡 정부의 정책을 높이 평가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제1차 ‘중앙아+EU’ 정상회의(아스타나市) 참석(10.27.)

-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예방) 양측은 △교역량 증대, △산업, 에너지, 운송, 물류,

농업, 경제 분야 투자 프로젝트 시행 등 양국 실질적 협력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고 22.11월 개최 예정인 튀르크어권 국가 기구(OTS)(사마르칸트市) 정상회의 의제 등 논의

- (제1차 ‘중양아+EU’ 정상회의)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법치주의 강화, △인권 및 양성평등 보장, △언론과 종교의 자유, △비즈니스 환경 개선, △주변국과 선린우호 관계 강화 등 ‘New Uzbekistan’ 개혁 추진 전략의 우선순위 강조

※ 동 회의에는 샤를 미셸 유럽의회 의장,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 등 참석

- 또한, 향후 협력 강화를 위한 △부총리 수준의 ‘중양아-EU’ 경제협력위원회 설립, △무역·경제 협력 및 교통·통신 상호연계성 강화를 위한 전략적 프로그램 ‘Global Gateway’ 마련, △에너지 분야 잠재력 활성화를 위한 유럽 측의 중양아 ‘녹색 의제 (Green Agenda)’ 프로그램 참여 등 제안

2. 경제·산업 동향

□ 주요 경제지표

■ 생산·소비(전년동기비) *출처: 우즈벡국가통계위원회

□ 생산·소비(전년동기비) *출처: 우즈벡국가통계위원회

- 산업생산(조숨) : ('21.9월) 314.8 → ('22.9월) 391.9(5.3%)('21년: 451.6)
- 소매판매(조숨) : ('21.9월) 167.0 → ('22.9월) 214.1(10.8%)('21년: 249.5)
- 물가(CPI)(%) : ('21.9월) 10.8 → ('22.9월) 12.2(전월비 △1.0%)('21년:9.98)

■ 대외교역(전년동기비) *출처: 우즈벡국가통계위원회

- 총 교역액(억불): ('21.9월) 283.2 → ('22.9월) 360.2(27.2%)('21년:451.6)
※ '22.9월(억불): 교역 360.2(27.2%), 수출 140.5(35.7%), 수입 219.7(22.3%), 수지 △79.2

- 對한 교역(억불): ('21.9월) 13.7 → ('22.9월) 18.3(33%)('21년:18.9)
※ '22.9월(백만불): [우통계] 교역 1,826.3(33%), 수출 38.5(2.9%), 수입 1,787.7(33.9%), 수지 △1,749.3
[韓통계] 교역 1,664(21.2%), 수출 22(35.1%), 수입 1,642(21%), 수지 △1,620

*출처: 한국무역협회

■ 금융·외환(전년동기비) *출처: 우즈벡중앙은행

- 기준금리(%) : ('21.10월) 14.0 → ('22.10월) 15.0(1%p)
※ 20.9월 이후 14%를 유지, 러-우 사태 이후 22.3.17. 17%로 인상 → 22.6.10. 16% → 22.7.22. 15%로 인하
- 숨/달러 환율 : ('21.10월) 10,683 → ('22.10월) 11,180.5(절상률 4.7%)('21년末:10,837.6)
- 외환보유고(억불): ('21.10월) 344.1 → ('22.10월) 335.0(금보유량 209.8)('21년末:351.4)
- 대외채무(억불) : ('22. 4월) 388(국가채무 234)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전기차 분야 활성화 방안 논의

- 10.10.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2022-2026 우즈베키스탄 발전 전략'에 따른 전기차 생산 확대 등 녹색경제 전환을 위해 △전기차 충전소 및 서비스센터 확대 등 관련 인프라 확충, △전기차 부품 생산 현지화, △전기버스 운행 확대, △해외 기업과 전기차 생산 합작사 설립, △동 분야 전문가 양성 등 강조

□ 우즈베키스탄-미국, 경제협력 확대 방안 모색

- 10.17. 호자예프 부총리 겸 투자대외무역부 장관은 타슈켄트를 방문한 마리사 라고 (Marisa Lago) 美 상무부 차관과 최근 우즈벡 내 △미국 자본참여기업 수 증가, △교역량 증대 등 협력 성과를 언급하고 △양자투자협정 서명 가속화, △광업, 화학, 농업, 섬유 등 분야에서의 협력 활성화, △교통회랑 확대, △우즈베키스탄 WTO 가입 지원 등 향후 전망 논의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농업개혁 중요성 강조

- 10.18.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22년 농업 분야 발전 성과 및 23년 과제 설정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여 기후변화, 국제위기 등 상황에서 식량안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내수 충족과 수출 극대화 중요성을 강조
- 특히, 농업 분야는 △식량안보, △국민안녕, △물가, △일자리와 직결되고 우즈벡 경제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동 분야의 지속적인 개혁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농민 대출 및 지원금 확대, △해외 기업과 국내 수자원 관리 공동 프로젝트 시행, △고부가가치 농산품 생산 증대, △농업 디지털화 가속화 등 지시

□ 22.3분기 우즈베키스탄 경제 현황 평가

- 10.19. 우즈벡경제연구개혁센터(CERR)는 2022.3분기 기준 전년동기비 △경제성장률 5.8%, △인플레이션 8.1%, △고정자본투자 5%, △산업생산 5.3%, △대외교역 27% 증가 등 우즈벡 경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

□ 투자대외무역부 대표단 방한

- 10.21. 투자대외무역부 대표단은 10.18-21. 방한하여 관계 부처 및 기관과 실무회의를 통해 한-우 무역, 경제, 투자 협력 현황 및 전망 등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 최근 양국 교역, 투자 분야 등 경제 협력 성과를 언급하고 △FTA 체결 가속화, △화상 월간회의 등 새로운 협력 체계 구축 등 합의
 -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과학기술연구원)△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 활성화, △고객 및 파트너사 유치, △운송, 물류 등 서비스 범위 확대 등 방안 논의
 -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국제협력단) △對우즈베키스탄 투자 확대, △전문가 양성, 비즈니스 장려 등을 위한 프로젝트 추진, △2022-24 금융기술협력 프로그램 시행 등 협력 방안 논의

□ 제23차 우즈벡-러시아 경제협력 정부 간 위원회 회의(타슈켄트市) 개최

- 10.23. 호자예프 부총리 겸 투자대외무역부 장관과 만투로프 러시아 부총리 겸 산업 통상부 장관의 공동주최로 진행된 동 회의에서 △교역량 증대 및 품목 다양화, △ 투자협력 및 산업협력 활성화, △석유화학, 야금, 에너지, 의료, 제약, 건축재 생산, 경공업 등 신규 프로젝트 개발, △양국 지역 간 교류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전망 논의

□ 제16차 우즈벡-일본 경제협력위원회 회의(타슈켄트市) 개최

- 10.25. 호자예프 부총리 겸 투자대외무역부 장관은 최근 양국 간 △교역량 증가, △우즈벡 내 일본자본참여기업 수 증가 등 경제 협력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향후 △제약, 광업, 화학, 섬유, 농업 등 유망 분야 프로젝트 개발 및 시행, △일본의 사이버, 바이오, 나노 기술 이전 등 IT 및 혁신 분야 협력 강화, △일본의 우즈벡 디지털화 지원 강화 등 향후 발전 방향 언급

※ 참석자: (우측) 호자예프 부총리 겸 투자대외무역부 장관 등 주요 부처 관계자

(日측) 니시타니 츠요시(Nishitani Tsuyoshi) 이토추(Itochu)상사 고문 겸 일-우 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대행, 히로히데 히라이(Hirohide Hirai) 경제산업성 차관, 노부히코 사사키(Nobuhiko Sasaki) 일본무역진흥기구 회장 겸 CEO 등

□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다각적 협력 발전 방안 모색

- 10.26. 호자예프 부총리 겸 투자대외무역부 장관은 제1차 '중양아-EU' 정상회의 계기 아스타나를 방문하여 카자흐스탄 주요 정부 인사와 면담을 갖고 양국 다각적 협력 발전 방안 논의
 - (스마일로프 총리) 양국 정상 간 정기적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모든 방향에서 협력 강화에 합의
 - (스클랴르 제1부총리) △에너지, 섬유, 광업, 산업협력 등 공동 투자 프로젝트 개발, △국제산업협력센터 설립, △33억불 규모 34개 기존 프로젝트 및 25억불 규모 37개 신규 프로젝트 시행 등 현안 검토
 - (주만가린 부총리 겸 무역통합부 장관) △교역량 증대, △교통 및 물류 회랑 확대, △카자흐 공공조달에 우즈벡 생산기업 참여, △육류 제품 공급 절차 간소화 등 논의

□ 우즈베키스탄-튀르키예, 주요 분야 협력 현황 및 전망 논의

- 10.29. 호자예프 부총리 겸 투자대외무역부 장관은 타슈켄트를 방문한 튀르키예 정부 대표단과 양국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전망 논의

- (메흐메트 무쉬 무역부 장관) 최근 교역 증대 등 경제 협력 성과를 강조하고 △ 무역 구조 다변화, △튀르키예의 국제화물운송협정 가입, △무역 회랑 확대, △ 교통 인프라 개발, △통관 절차 간소화 등 현안 논의
- (바히트 키리시 농림부 장관) △농촌 개발 관련 튀르키예 경험 전수, △농업 비즈니스 활성화, △농촌 지역 프로젝트 시행 지원 방안 등 논의
- (무랏 쿠룸 환경·도시개발·기후변화부 장관) △주택 건설 프로젝트 관련 튀르키예 경험 전수, △아탈해 지역 거주민의 건강 보장 및 취업률 향상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 시행 방안 등 모색

3. 에너지·인프라 동향

□ 주요 에너지통계

■ 에너지 생산 및 증감률(전년동기비) *출처: 우즈베크국가통계위원회

- 전력(십억kWh):('21.9월) 51.2 → ('22.9월) 52.5(2.5%) ('21년: 70.1)
- 가스(bcm):('21.9월) 39.5 → ('22.9월) 38.9(△1.6%) ('21년: 53.8)
- 석유(천톤):('21.9월) 1,555 → ('22.9월) 1,557(△0.1%)(※가스콘덴세이트 포함) ('21년: 2,098)
- 석탄(천톤):('21.9월) 3,644 → ('22.9월) 3,896(6.9%) ('21년: 5,054)

■ 에너지 가격 및 증감률(전년동기비) *출처: (전기)우즈베크국가전력망공사, (가스/가솔린/디젤)우즈베크석유가스공사

- 전기(UZS/kWh):('21.10월) 450 → ('22.10월) 450(0%) (※산업용) ('21년: 450)
('21.10월) 295 → ('22.10월) 295(0%) (※가정용) ('21년: 295)
- 가스(UZS/m³):('21.10월) 1,000 → ('22.10월) 1,000(0%) (※산업용) ('21년: 1,000)
('21.10월) 380 → ('22.10월) 380(0%) (※가정용) ('21년: 380)
- 가솔린(UZS/ℓ):('21.10월) 9,500 → ('22.10월) 12,400(30.5%) (※Ai-95 기준) ('21년: 10,200)
- 디젤(UZS/ℓ):('21.10월) 9,100 → ('22.10월) 12,800(40.7%) ('21년: 9,500)

□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우즈베키스탄 송전선로 건설 계약 체결

- 10.9. 투자대외무역부와 EBRD는 우즈베크 국가전력망공사 시스템의 일부인 새로운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대해 4.7천만불 대출 및 프로젝트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동 송전선로는 호레즘주 사르마이(Sarimay) 지역과 부하라주 잔겔드(Jankeldy) 지역 사이에 건설될 예정
 - 동 송전선로는 풍력발전소 2곳(총 용량 최대 1GW)과 국가 전력망을 연결할 예정

□ 튀르키예 청기즈에너지(Chengiz Energy), 시르다리아주 220MW 화력발전소 가동 착수

- 10.10. 튀르키예 청기즈에너지(Chengiz Energy)사는 시르다리아주 하바스트(Khavast) 지역에 위치한 220MW 규모 가스피스톤 화력발전소를 가동하였으며, 동 발전소는 연간 1.7억 kWh의 전력을 생산할 예정
 - ※ 21.3.29. 우즈베키스탄과 튀르키예 대통령이 동 발전소 건설 착수식 참석

□ 아시아개발은행(ADB), 우즈베키스탄 통합 도시 개발 지원

- 10.18.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코로나19 등으로 성장이 둔화된 우즈베키스탄 4개 도시의 기반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위해 5.9천만불 대출과 50만불 보조금을 승인했으며, 동 프로젝트는 지작(Jizzakh), 하바스트(Khavast), 히바(Khiva) 및 양기예르(Yangiyer)市에서 시행될 예정

□ 우즈베키스탄 - 투르크메니스탄 에너지부, 양해각서 체결

- 10.21.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투르크메니스탄 공식 방문 계기 양국 에너지부는 전력산업 분야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동 양해각서는 △양국 간 전력 거래 협력, △기존 전력 공급 계약의 유효 기간 연장, △전력 거래량 증대, △에너지설비 수리 분야 협력, △시설 보수작업 등 포함

□ 우즈베크철도공사, 2025년까지 44개 신규 열차 도입 예정

- 10.24. 우즈베크철도공사(O'zbekiston Temir Yo'llari)는 '타슈켄트-부하라-히바' 노선을 위해 2023-2024년 스페인 TALGO로부터 아프로시얏(Afrosiyob) 고속철도용 열차 4대를 신규로 도입할 예정
- 또한, 2023-2025년간 전기 열차 34대, 디젤 열차 6대를 구매할 계획이라고 발표

□ 타슈켄트-사마르칸트 및 타슈켄트-안디잔 유료고속도로 2026년까지 건설

- 10.27. 보조로프(Bozorov) 민관협력사업(PPP)개발청장은 2022-2026년간 △타슈켄트-안디잔 유료고속도로, △타슈켄트-사마르칸트 유료고속도로, △사마르칸트와 샤크리사브즈(Shakhrisabz) 사이 66km의 도로, △Takhtakarach Pass 내 4.4km의 새로운 유료 터널 건설 및 관리 등 5가지 주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발표
- ※ '21.3월 발표에 따르면 타슈켄트-안디잔 및 타슈켄트-사마르칸트 유료고속도로의 통행료는 일반 승용차는 5~6불, 화물차는 15~20불 수준, 최대 운행속도는 120~150km/h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

□ 우즈베키스탄, 對중국 천연가스 수출량 증가

- 10.28. 중국 관세청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은 금년 1~9월간 동기 대비 59.4% 증가한 7.68억불 상당의 천연가스를 중앙아시아-중국 파이프라인을 통해 중국으로 수출
- ※ 중앙아시아-중국 파이프라인은 총 길이 1830 km, 총 용량 연간 550억m³
- 22.1~9월 간 중국의 국가별 천연가스 수입규모는 △투르크메니스탄 73.2억불, △러시아 28억불, △미얀마 9.8억불, △카자흐스탄 9.37억불, △우즈베키스탄 7.68억불 등

<참고: 우즈베키스탄 경제 개황>

- 국토면적 : 44.9만km² (한반도의 약 2배)
- 인 구 : 3,527만명 (2022.1월 기준)
 - ※ 중앙아 5개국 76.5백만명 (카자흐 19.1백만, 타직 9.5백만, 키르키스 6.6백만, 투르크멘 6.1백만)
- 경제성장(IMF)
 - 명목GDP : (2020) 599.3억불 → (2021) 678억불
 - 1인당 GDP : (2020) 1,767불 → (2021) 1,983불
 - 실질성장률: (2020) 1.7% → (2021) 7.4%
- 교역현황 : (2020) 363억불 → (2021) 421억불(16%)
 - ※ 2021년 수출입 : 수출 166억불(10%), 수입 255억불(20.4%), 무역수지 △89억불
 - ※ 교역순위(억불): ①러시아(75.2), ②중국(74.4), ③카자흐(39.1), ④터키(33.9), ⑤한국(18.9)
- 경상수지 : (2020) △31.4억불 → (2021) △46억불
- 외국투자
 - 외국인직접투자(FDI): (2020) 28.7억불 → (2021) 28.4억불(30.1조숨)
 - 외국투자기업 수 : 총 13,289개 (2022.1.1. 기준)
 - ※ 국별순위: ①러시아 2,309개, ②중국 1,927개, ③터키 1,882개, ④카자흐 1,067개, ⑤한국 896개
- 투자환경
 - 국가신용등급(S&P) : BB-(장기)/B(단기)
 - 기업환경평가(세계은행, Doing Business) : 69위/190(2020)
 - 경제자유지수(해리티지재단, Index of Economic Freedom) : 108위/186(2021)
 - 부패인식지수(국제투명성기구,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 140위/180(2021)
- 지역경제

연번	지역명	면적(천km ²)	인구(천명)	지역총생산(2021)	
				조숨	비중(%)
1	카라칼팍스탄 자치공화국	166.6	1,948.5	26.3	3.6
2	안디잔주	4.3	3,253.5	43.8	6.0
3	부하라주	40.2	1,976.8	38.7	5.3
4	지작주	21.2	1,443.4	23.3	3.2
5	카슈카다리아주	28.6	3,408.3	43.8	6.0
6	나보이주	111.1	1,033.9	59.4	8.1
7	나망간주	7.4	2,931.1	34.5	4.7
8	사마르칸트주	16.8	4,031.3	53.7	7.3
9	수르한다리아주	20.1	2,743.2	30.1	4.1
10	시르다리아주	4.3	878.6	15.6	2.1
11	타슈켄트주	15.2	2,941.6	82.1	11.2
12	페르가나주	6.8	3,896.4	47.3	6.4
13	호레즘주	6.1	1,924.2	26.9	3.7
14	타슈켄트시	0.3	2,860.5	121.8	16.6